

“국민들 책임게 만들자”

일본, 문자·활자문화 진흥법 제정 추진

도서대국 일본이 국민의 독해력 저하를 막기 위해 법까지 제정하며 ‘활자(活字)이탈’ 저지에 나섰다. 일본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 ‘활자문화의원연맹’은 공립도서관을 늘리고 ‘언어력’ 향상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자·활자문화 진흥법’을 올해 안에 만들기로 했다. 13개조의 법안요강은 문자·활자문화의 정의를 ‘활자 및 기타 문자를 써 표현된 것(문장)을 읽고 쓰는 일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신적 활동, 출판활동, 그리고 문장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한 활동 및 문화적 유산’이라고 규정했다.

법안은 또 기본이념으로 ▲ ‘국어’가 문화·활자문화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중시하고 ▲ 학교 교육과정에서 읽는 능력과 쓰는 능력을 기초로 한 언어력을 함양한다고 정했다. 이밖에 독서주간 첫날인 10월 27일을 ‘문자·활자의 날’로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기로 했다. 중·참의원 286명으로 구성된 활자문화의원연맹은 이 법안을 각 당공식기구의 의결을 거쳐 현재 개최중인 국회에 제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또 기초자치단체에 필요한 수만큼 공립도서관을 설치하고 사서와 자료도

충실히 구비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이를 위해 사서 교원과 교육직원 양성·연수 등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국가에서는 번역기회가 적은 외국 출판물을 번역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출판활동 지원조항도 포함됐다. 다음은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 목적

이 법률은 문자·활자 문화가 보다 좋은 인간관계를 창조하는 기반이며, 인류가 긴 역사속에서 축적해 온 사상·예술·과학·지식·지혜의 계승과 발전, 활력있는 민주주의 실현에 없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감안해 문자·활자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또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분명히 하는 한편 문자·활자 문화의 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자·활자 문화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지적인 국민 생활과 문화의 향기가 높은 사회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본이념

문자·활자 문화의 진흥에 관한 시책은

모든 국민의 자주성이 존중되면서 일생에 걸쳐, 학교·지역·가정 그 외 다양한 장소나 신체상의 조건에 관계없이 동일하고 풍부한 문자·활자 문화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는 것을 취지로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해 독해력, 작문능력 및 분석능력을 기르는 것이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 국가의 책무

국가는 기본이념에 따라 문자·활자 문화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또한 실시하는 책무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지방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가와의 제휴를 꾀하면서 그 지역의 실정을 근거로 해 문자·활자문화 진흥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정하고 또한 실시하는 책무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 학교 교육에 관한 시책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학교 교육에 있어

서의 독해력, 작문능력 및 분석능력을 육성하는 교육의 충실을 꾀하기 위해 교육방법의 개선이나 교육 직원의 자질 능력 향상을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학교도서관 등 학교에서의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사서 교원 및 학교도서관의 제반 사무에 해당하는 직원의 배치 등 인적 체제의 정비와 도서 자료의 충실, 정보화의 추진 등 물적 조건의 정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 독서 지도, 독서 시간의 확보
- 교원 양성 과정에 '도서관과' 또는 '독서과' 의 도입
- 학교도서관 도서 표준의 달성, 학교도서관 도서 정비비의 교부세(交付稅) 조치 충실·예산화
- 12학급 이하의 학교에 사서 교원 및 도서관 직원의 배치
- 사서 교원의 담당 수업 경감·전임화 추진
- 고교 도서관의 충실
- 맹인·농아 학교의 독서 환경 정비
- 신문을 사용한 교육 활동의 충실
- 읽고 쓰기 활동의 기반인 국어 교육의 충실, 말(언어)의 교육 지원
- 학교도서관 지원 센터의 설립에 의한 학교 간, 공공도서관과의 제휴·추진
- IT화의 추진에 의한 국제어린도서관과 학교도서관·공공도서관의 네트워크화

>> 지역에 있어서의 문자·활자문화의 진흥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공공도서관이 널리 주민에게 이용되는 환경 정비를 꾀하기 위해 사서 등의 인적 체제의 정비와 도서 자료의 충실 및 정보화의 추진 등 물적 조건의 정비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공립 도서관의 설치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 관해서 도서관의 주민 이용 및 그 외 지역에 공헌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독서 추진 단체 등 지역에 있어서의 문자·활자 문화의 진흥

을 담당하는 민간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 북스타트의 보급·지원
- 책의 읽고 말하기, 독서 어드바이저의 육성
- 이동도서관의 보급·확충
- 작문 어드바이저(저술업, 작가 등)의 네트워크화에 의한 작문 활동의 장려
- 독서·그림책의 마을만들기 활동 지원
- 교육기관의 도서관 지역 개방
- 미 설치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설치
- 공공도서관 설치 기준 개혁(지자체 단위로부터 인구비로의 개선)
- 공공도서관 도서의 충실, 학술·연구의 전문서적 정비·충실
- 공공도서관에 전문적인 직원·독서 어드바이저 배치

>> 출판 활동에의 지원

국가는 학술적 가치를 가지는 출판물의 보급을 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국가는 문자·활자 문화의 국제 교류에 이바지하는 출판 및 그 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 저작물 재판(再版) 제도의 유지
- 학술적 가치를 가지는 저작물의 진흥·보급
- 판면권(版面權)의 창설(출판자 고유의 권리)
- 번역 기회가 적은 나라들의 저작물 번역, 일본어 저작물 번역의 진흥·지원, 거기에 필요한 번역자의 양성
- 세계 각지에서 개최되는 북 페어 등 국제 문화 교류의 지원

>> 재정상의 조치 등 기타 조치

정부는 문자·활자 문화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및 기타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 도서대국 일본이 국민의 독해력 저하를 막기 위해 법까지 제정하며 '활자이탈' 저지에 나섰다. 일본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 '활자문화의원연맹'은 공립도서관을 늘리고 '언어력' 향상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자·활자문화 진흥법'을 올해 안에 만들기로 했다. 13개조의 법안요강은 문자·활자문화의 정의를 '활자 및 기타 문자를 써 표현된 것(문장)을 읽고 쓰는 일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신적 활동, 출판활동, 그리고 문장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한 활동 및 문화적 유산'이라고 규정했다.

